#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17호>

2002년 11월 5일(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김규진 편집장 김종원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지난달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2박 3일간 금강산에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여성들이 함께하는 여성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 참가한 전유리양을 만나봤다. 이와함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총장과의 협상 결렬로 인한 용인 해원의 대축제 취소 소식을 전한다.

추위와 함께 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화재' 우리학교의 화재 안전도를 조사했다.

170명의 희생자를 낳은 '모스크바 인질극' 외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얼마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체첸반군들의 테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름모를 독가스를 살포한 러시아. 외대학보 독자는 이 사태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와함께 쌀과 반전에 대한 외대인의 생각을 실었습니다.

대학가에 팽배해있는 커닝. 이번주는 커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수능 하루 전.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새벽달을 보며 귀가했을,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많은 입시생들을 바라보며 문득 우리 크로니클지, 대선 39일전을 앞둔 지금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철새정치인들을 지켜보며 한숨지었다.


# 재단은 '공영화'로… 3주체 합의안 도출

## 지난달 16일(수) 열린 재단발전위원회 2차 합동회의에서 결정

앞으로 우리학교에서 추진할 재단형태는 '공영화' 방안으로 결정됐다. 재단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21일(월)자로 발표한 '재단발전위원회 결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될 재단형태는 △공영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재정능력을 가진 우량기업과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학과별 국책화도 함께 모색한다. 재단발전위원회 내 공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공영화'는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나 정부기관, 특정기업이 아닌 제3의 공공단체나 법인이다. 가칭 '재단발전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영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데, 공영화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재단이사회 구성방안이 그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구성방안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직원, 3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공평히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사회는 총장(당연직), 동문 2~3명, 재정기여자(또는 기업) 2~3명, 사회저명인사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최초 이사진 중 5명은 총동문회,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학생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사람과 총장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4명은 총장, 총동문회장, 교수협의회장, 노조위원장, 학생회장 5사람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한다.

재단발전위원회에 학생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배움터 외대발전추진위원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은 공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결정은 옳았다며 앞으로도 "재단관련 문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용인배움터 학생위원들은 재단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에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학·마인어 98)양은 "지난 여름에 용인배움터 학생위원들이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참석이 불가능했고 더욱이 한총련 이적규정문제로 학생위원들에게 수배가 내려져 학교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이정철씨는 "학내구성원들이 '재단'이라는 중대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이끌어낸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안 도출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공영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재단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총장이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 교수들도 지난 1일(금)에 열린 전체교수회의 공영화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재단발전위원회 결의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기권의사를 나타냈는데,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열(스칸디나비아어과)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 구성문제는 학교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단발전추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법은 교수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총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칭 '재단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안병만 총장은 "재단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만 밝혀 앞으로 구성방법과 권한정도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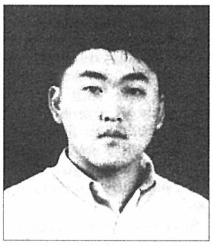
### 재단발전위원회 결의안

1. 외대가 지금의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재단발전의 기본골격은 공영화형태로 한다.
2. 외대발전을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절실하다. 투자의지와 재정능력을 갖춘 우량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외대의 특성상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며 또한 가능하다. 학과별 국책화 또는 부분 국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도 관학 또는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공조를 모색한다.
4. 재단발전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단일안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발전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5. 이상의 합의안을 전체 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용인 허환희-이동수조 출마

## 서울 총학생회 선거는 26, 27일(수)

총학생회장 후보 허환희(동유럽·노어 97)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동수(인문·사학 00)

용인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선거에 정후보로 허환희(동유럽·노어 97)양이, 부후보로 이동수(인문·사학 00)군이 등록했다. 후보등록은 지난 1일(금) 오후 6시 총학생회실에서 마감했으며 허환희, 이동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선본은 총학생회 선거세칙 2장 5조 3항에 따라 입후보신청서, 재직증명서, 공정선거서약서, 추천인명부를 제출했으며 모두 602명의 추천을 받았다.

선거운동기간은 4일(월)부터 18일(월)까지이며, 투표는 오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삼일간 진행된다. 정후보로 출마한 허양은 2002학년도 노어과 학생회장을, 부후보로 출마한 이군은 2002학년도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각각 활동했으며 출마이유를 "2002년 학생들을 위해 살려고 했지만 마음과 일치되지 않게 살아왔다"며 "대학생활을 후회없이 하고 '학생들의'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24대 선거관리위원장인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학·마인어 98)양은 "선거가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얼마만큼 찬성하느냐보다 얼마만큼 투표하느냐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와 선본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고 전했다.

### 핵심공약

△대학문화 찾기 운동본부 건설 △왕산체전 발전적 해체 △테마 MT플래너 신설 △대동제의 획기적인 변화 △모현 물가 안정대책 수립 △교육의 질 개선 △장애학우를 위한 편의시설확충 △진보강연 신설 △총학생회 온라인 소환제 △총학생회 중간평가제 △교육법안 상정위원회 건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부재자투표(대선)시행 △확대운영위원 금강산 모꼬지 △통일 문학상 신설

서울 한편,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선거 투표일은 오는 26, 27일(수) 이틀로 결정됐다.

서울배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지난 10월 31일(목) 공고한 37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오는 7, 8, 11일(월) 삼일은 후보 추천기간이고, 후보등록 마감은 총학생회실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2일(화)부터 25일(월)까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간 주어진다.

또한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시행세칙 2장 6조 (후보자 등록)에 의거 △입후보자 등록원서(중선관위 소정양식) △재학생 1/10 이상의 추천서 △재학증명서 △출사표용 사진 2매와 포스터용 사진 2매 △출마소견문(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A4 2매 이내) △핵심선거공약, 으뜸구호 △이력서 등의 서류와 △선거공영제 실행을 위해 중선관위가 지정한 공동선거자금을 후보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기획

# '번역'은 당당하고 싶다

"번역가는 'Nothing to lose'를 보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나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번역가중 하나로 꼽히는 이윤기씨의 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번역은 '베끼기'가 아니다. 번역(translation)의 어원은 '저편으로 인도하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표면상으론 한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지만, 한 문화권의 텍스트를 다른 문화권으로 옮기는 작업이 곧 번역. 비유를 하자면, 서양 체스를 동양의 장기로 옮기는 작업인 것이다. '로마인이야기'를 번역한 김석희씨가 "번역은 '장미밭에서 춤추기' 같은 고통 속의 쾌락"이라고 말한 대목은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케한다.

번역은 자기와 다른 여러 나라의 사상·문화·기술 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번역은 단순한 어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언어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번역의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메이지유신때 외국의 다양한 책들을 끊임없이 번역함으로 본격적인 근대화를 이룩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번역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이뤄지고 있는가? 출판계나 독자들이 번역가를 바라보는 인식은 어떠한가? 한 번역가는 "번역가 대부분이 노력에 비해 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명 번역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겨우 먹고살고', 무명의 신참들은 최저생계비에도 이르지 못하는 현실, 최근 전문번역가가 숱하게 등장하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아닐까. 번역이 이런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 이상 훌륭한 번역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많은 번역가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번역의 실태는 어떠하고, 우리학교의 과제는 무엇일까.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용인, 부속외고 설립 추진

학교당국이 용인시와 함께 용인배움터에 '전교생 기숙사생활,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골자로 하는 우리학교 부속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용인시에서 학교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설립의사를 타진하다가 안병만 총장 취임후인 9월초 이정문 용인시장이 안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학교당국은 한 달간의 검토 후 용인시와 학교설립을 합의했으며, 현재 세부절차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금) 열린 교수회의에서 안총장은 "학교당국은 부속외고 부지(용인배움터 내 1만 2천평규모)만 지원하고 학교건물·기숙사·시설 등은 전부 용인시에서 지원한다"고 전하며 "2인 1실의 기숙사를 짓고 모든 관계직원을 원어민으로 채용하는 등 외국어고 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당국은 만약 부속외고가 설립된다면 △'캠퍼스 타운' 형성으로 고질적인 용인배움터 공동화현상 해소 △대학과 고등학교의 긴밀한 연계 △'외대' 정체성 확보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강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토) 학교당국은 용인시에 시가 부담하는 예산책정안을 제출했으며 학교와 시는 현재 협약서 초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학교당국과 용인시 사이에는 구두합의만 이뤄진 상태이며 서류상으로는 합의·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 이와 관련, 용인시청 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양쪽(학교당국과 용인시) 모두 추진의사는 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에서 과장한 측면이 있다. 학교설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실무진끼리 검토중일 뿐이다"며 "실무진들은 기사를 보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전했다. 학교측의 실무책임자인 조기성 용인배움터 총무처장(생명공학과 교수) 또한 "개교일정, 학교부지, 과나 커리큘럼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후에 확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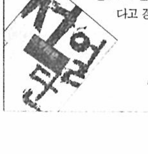
한편, '외대 부속외고설립' 기사를 쓴 중앙일보 김남중 기자는 "안병만 총장과 김인철 기조처장(행정학과 교수), 이정문 용인시장의 '도교육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거의 확정적이다'는 말에 기초해서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서얼단상

'전라도 사람으로서의 내 정체성이 내게 준 선물이 있다. 나는 철들 무렵부터 내 눈길이 늘 소수 집단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본문 중

윗 글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전라도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동류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은이는 자신을 '첩의 소생'이라는 뜻의 '서얼'에 견주어 현대사회의 '서얼'들이 느끼는 주변적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최대부수와 최대영향력을 자랑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한다. 조선일보는 일개 언론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기관화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저자는 어떠한 신념이든 "진리의 열정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희생제의'를 야기하는 '광신'으로 돌변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고종석
/ 개마고원
/ 13,000원

빈

# 대화가 필요해

▲ 서울배움터에서 학생·교수·직원의 화합의 자리였던 '외대를 위하여'란 행사가 용인배움터에서도 진행되는 듯 했으나 무산됐다. 이는 지난 23일(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안병만 총장과의 협상자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학기 근거없이 등록금을 인상해 환불을 하게 된 학교측의 무책임함에 대한 유감표명을 문서화할 것을 안총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등록금 협상시 중앙운영위원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징계처리 무효화를 주장하며 재심항소를 할 수 없는 학칙개정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안총장은 등록금 책정에 관한 유감표명 문서화는 들어줄 수 없다며 '해원의 대축제'를 통한 발언과 학내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무기정학 처분은 조규철 총장 재임시 내려진 징계이기에 자신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안총장과 용인배움터 학생회는 대립된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중단돼버린 것이다.

▲ 현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학교측의 대화통로는 장시간 막혀 있다. 등록금 책정의 무책임함에 대한 유감표명은 구두론 할 수 있지만 문서상으론 할 수 없다는 안총장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조총장 당시 내려진 징계이기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안총장의 발언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징계처리로 인해 계절학기 성적이 백지화되어 졸업할 수 없게 된 중앙운영위원들이 생기고 직원과 다르게 항소할 수 없는 학칙에 문제점이 현 사안이라면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안총장은 문제해결을 피해선 안 될 것이다.

▲ 또한 용인배움터 학생회도 유연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점을 따내는 것도 총학생회의 능력이기에 지나치게 원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하려는 자세가 협상대표자들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협상 전과 후의 진행상황을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부장

## 이사람

남북여성대회 다녀온 전유리(동유럽·노어 01)양을 만나

# 통일문제, 여성이 앞장서서

김종원 기자

지난달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2박 3일간 금강산에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여성들이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본보기자가 취재단으로 뽑혀 참여하기로 했던 행사였으나 남자라는 이유로 불허가 내려졌던 여성만을 위한 행사였기에 이에 대한 기자의 궁금증은 대단했다. 670여명의 남북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편견과 오해를 풀었던 행사에 우리학교 참가자 전유리(동유럽·노어 01)양을 만나봤다.

"행사에 참여하기 전 금강산에 가고 북녘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니 어색함보단 친근함이 더 컸어요"라며 행사를 갔다온 감상을 전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전양은 "남북 여성대회는 민족의 절반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지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여성들의 참여로 딱딱한 통일문제를 보다 대중적인 통일운동으로 풀어내는데 기여할 것 같아요"고 말한다. 실제로 이번 여성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와 근로여성, 여성정책, 여성단체 등의 부분별 만남의 자리가 열려 남북 여성대화에 물고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북의 여성들과 이야기하던 가운데 북에 대해 느낀점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여성에 대한 복지가 잘되어 있었어요. 출산 휴가 등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잘되어 있는 나라였어요"라고 답한다.

3일간 같이 생활하며 느낀 북의 여성에 대해서 전양은 "감정을 잘 드러낼 줄 아는 당당한 여성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기분에 대한 표현이 확실하고 말투에서도 당당함이 느껴졌어요"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그녀는 "남한에서도 아줌마 파워가 대단하듯 북의 아줌마들도 시원시원 했어요. 여기서 민족의 공통점을 보았죠"라며 웃음 짓는다. 한가지 에피소드로 전양은 "한번은 술자리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술 잘 못 마신다는 분들이 술자리에선 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 참 당황스러웠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한다.

"저에게 비친 북의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들 보다 조금 보수적이란 생각만 들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아무런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투 역시 오히려 같이 간 경상도, 전라도사람들의 사투리를 더욱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없었고요"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양은 "남북이 보다 자주 만났으면 해요. 이번 행사에서 실질적인 사안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라며 말을 마쳤다. 남북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그녀의 모습에서 기자는 무엇인지 모를 부러움이 느껴졌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늘어 많은 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11월의 테마 - 이북 영화제

### 불가사리 (1985, 북한)

- 감독 - 신상옥
- 주연 - 장선회, 사쓰마 겐하치로
- 때 - 11월 5일(화) 오후 5시 30분
- 곳 - 서울배움터 대학원 411호(6411)

우리나라에 상영된 최초의 북한영화. 고려조 말, 쇠를 먹는 불가사리의 도움으로 민란이 성공한다. 그러나 불가사리의 식욕은 그칠 줄 모르고 민중의 영웅이었던 불가사리는 거대한 위해자로 변해간다.

▶자료제공 - 서현미(서양·불어 99)

## 서울배움터

| 구분/요일 | 학생 | | | | | |
|---|---|---|---|---|---|---|
| | 아침 | 점심A | 점심B | 점심C | 저녁 | 면 |
| 월 (4일) | 버섯김치찌개 (₩1,400) | 팔보채 (₩1,400) | 오무라이스 (₩1,500) | 대구매운탕 (₩1,400) | 사골우거지국밥 (₩1,400) | 잔치국수 (₩1,000) |
| 화 (5일) | 오징어콩나물찌개 (₩1,400) | 참치회덮밥 (₩1,500) | 불고기덮밥 (₩1,500) | 얼갈이곰탕 (₩1,500) | 냉이된장찌개 (₩1,300) | 짜장면 (₩1,000) |
| 수 (6일) | 소고기국밥 (₩1,500) | 소고기버섯덮밥 (₩1,500) | 휘시커틀렛 (₩1,600) | 콩나물국밥 (₩1,400) | 육개장 (₩1,500) | 우동 (₩1,000) |
| 목 (7일) | 생선조림백반 (₩1,000) | 케이준라이스 (₩1,600) | 닭불고기덮밥 (₩1,500) | 갈비탕 (₩1,600) | 돈육김치볶음덮밥 (₩1,400) | 짬뽕 (₩1,000) |
| 금 (8일) | 불고기백반 (₩1,000) | 오징어떡볶음덮밥 (₩1,500) | 카레돈까스덮밥 (₩1,600) | 닭개장 (₩1,400) | 설렁탕 (₩1,500) | 스파게티 (₩1,200) |

## 용인배움터

| 구분/요일 | 어문관 | | | 후복관 | | |
|---|---|---|---|---|---|---|
| | 중식 1 | 중식2 | 분식 | 일품 | 스페셜 | 양식 |
| 월 (4일) | 조랭이떡국백반 (₩1,500) | 돈가스정식 (₩2,000) | 유부우동 (₩1,200) | 낙지덮밥 (₩1,800) | 고추장수제비 (₩1,500) | 카레돈까스 (₩2,000) |
| 화 (5일) | 소고기덮밥 (₩1,500) | 닭곰탕 (₩1,800) | 잔치국수 (₩1,200) | 사리곰탕 (₩1,800) | 짜장밥 (₩1,500) | 치킨까스 (₩2,000) |
| 수 (6일) | 콩나물비빔밥 (₩1,500) | 갈비탕 (₩1,800) | 해물국수 (₩1,200) | 닭다리백숙 (₩1,800) | 마파두부덮밥 (₩1,500) | 함박스테이크 (₩2,000) |
| 목 (7일) | 오삼덮밥 (₩1,500) | 생선까스 (₩2,000) | 온모밀 (₩1,200) | 정육불고기덮밥 (₩1,800) | 김치볶음덮밥 (₩1,500) | 생선까스 (₩2,000) |
| 금 (8일) | 오뎅백반 (₩1,500) | 동태매운탕 (₩1,800) | 잔치국수 (₩1,200) | 잡채밥 (₩1,800) | 콩나물밥, 양념장 (₩1,500) | 미트소스스파게티 (₩2,000) |

# 용인배움터, 협상결렬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안병만 총장과의 면담이 지난 10월 23일(수)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면담에서 총학생회측은 총장에게 △2002학년도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사과표명 △협상 중 내린 학생대표자 징계에 대한 철회 △2003년 등록금 동결 △100대 학자요구안 수렴 실행 등 네가지를 요구했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진전없이 종결됐다. 총학생회는 28일(월)까지 학교측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사과의 말을 전할 수는 있으나 문서화할 수 없다 △징계철회는 총장에게 권한이 없고 일사부재리,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재심의가 불가능하며 징계처리학생에게는 다음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등록금은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는 공고문을 통해 장학금 등 학교측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기본적인 학자요구안조차도 들어줄 의지를 가지지 않은 채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과 징계로 일관하는 학교측의 모습과는 결코 타협할 일말의 여지가 없으며 끊임없이 민주적 외대를 위해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학생처 학생주임 최태경씨는 "강력한 투쟁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만 총장은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해원제를 용인배움터에서도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31일(목) 열 것을 제안했었으나, 학생회는 협상결과 해원제가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행사를 취소했다. 현재, 우리학교 교칙에는 징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징계의 재심의 및 철회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민노당 학생위 하반기 총회 열려

민주 노동당 외대왕산 학생위원회(이하 민노당 학생위)가 지난 10월 28일(월) 후생복지관 4층 소극장에서 당원 23명을 포함한 43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민노당 당가 배우기와 정태흥 민노당 전국학생위원회(준) 공동위원장의 초청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본 마당은 △민중 의례 △당원 성원확인 △보고사항 △신입당원 환영 및 소개 △토론안건 △학생회 선거 후보자 인준 투표 △분회별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민노당 학생위는 민노당에 소속된 왕산학생들의 모임으로 지난 10월 7일(월) 창립 총회를 연 바 있다. 그 이후 민노당 학생위는 당원 확보 사업으로 6명을 증원했다. 또한, 학생위는 미군훈련반대 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운동은 미군훈련반대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천원씩 모금받는 것이며, 모금을 통한 수익금은 오는 7일(월)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광고에 사용된다. 광고내용은 '사람잡는 미군훈련반대'라는 문구와 모금에 동참한 학생들의 이름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학생위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허환희(동유럽·노어 97)양을 정후보자로 공천했다. 공천과 관련, 모든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는 찬선 10표, 반대 5표, 무효 4표이다.

# 대학생투표참여운동

인터넷 대학신문 '유뉴스(www.unews.co.kr)'와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대학언론인 유권자 운동본부'가 대학생 투표참가운동을 진행한다.

유뉴스 박종진 대표(철학과 98졸)는 "날이 갈수록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하되고 있다. 선배, 청춘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소중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주역인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학생 투표참가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투표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부재자 투표소 설치 등 제도개선운동 △젊은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적 이슈화 등으로 대학생 정치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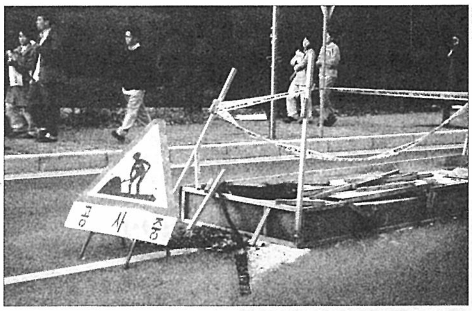
홈페이지: vote.unews.co.kr

# '아사연' 시민토론회

지난 10월 30일(수) 우리학교 이장희 교수(법학과)가 원장으로 있는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제 2배움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냉전법령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북한이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냉전법령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가보안법의 관련성 및 국가보안법의 현주소와 개정방향을 살펴 보다 활발한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들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개최됐다.

주최측은 도출된 토론내용을 기초로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냉전법령들에 대한 개정을 국회 및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원 기자

**허구헌날 공사중?** *용인배움터 차량차단막공사가 학교와 학생사이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김종원 기자

# 신광휴 교수 '현대사회와 윤리' 출간

통일안보연구소 소장을 맡고있는 신광휴 교수(국민윤리 담당)가 저술한 서적 '현대사회와 윤리'가 지난 10월 23일(수)출간됐다.

이 책을 통해 신교수는 현대 산업사회가 낳은 윤리적 문제를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을 키움으로써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햇볕정책 등 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건전한 안보의식 역시 현대사회에 필요한 윤리라고 설명한다.

이와관련 신교수는 "젊은이들은 전통윤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책을 젊은이들이 읽음으로써 국민윤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정윤리와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02 노벨문학상 수상자 문학세미나

동유럽발칸학연구소와 세계문학비교학회가 공동으로 계최한 2002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케르테스 임레(Kertesz Imre)의 문학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달 18일(금) 용인배움터 후복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케르테스 임레는 1975년 마흔여섯의 늦은 나이에 '운명없는 인간들 (Fateless)'로 문단에 들어섰다. 유대인인 그의 작품은 모두 일관되게 유대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헝가리 유대인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헝가리어과 이상협 교수의 사회와 한경민교수의 발표, 유진일 강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생협, 일용직 및 파트 임금 인상돼

생활협동조합 일용직 및 파트타임 종사자의 급여가 인상됐다. 생협은 지난 10월 23일(수) 제 4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임금인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3년 일용직 및 파트타임의 급여를 인상 조정하여 시행한다.

단, 그 적용시기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1) 일용직 : 일급여를 현행기준 2,000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2) 파트타임/부직생 : 시간급여를 조리직은 200원, 판매직은 100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단, 제과점 파트타임의 급여는 현재 급여를 유지한다.

2. 일용직의 특별수당 지급방법을 조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한다.

1) 학기말수당 : 일용직이 한학기를 만근하였을 시 100,000원을 지급한다.

2) 연말수당 : 일용직이 일년을 만근하였을 시 200,000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수당의 지급대상은 학기말수당은 3월과 9월 이내 입사자로 하며, 연말수당은 매해년도 3월 이내 입사자로 한다.

3.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및 제보험가입을 2003년부터 시행한다.

1) 퇴직금 : 1년에 12개월을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하여 2003년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시행하며,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퇴직위로금 : 1년에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일용직원에 대하여 2003년부터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시행하며,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시에 지급한다.

3)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가) 12개월 근무자 : 2003년부터 4대보험 가입을 시행한다.

나) 12개월 미만 근무자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한하여 가입한다.

4.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행

2003년부터 조합은 일용직원의 급여 및 제반 근무조건을 포함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또는 재계약시 작성한다.

이와 관련 생협 이사장은 공고문을 통해 "생협은 일용직 및 파트타임의 급여조정과 아울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며 "그러나 2002년 9월 '일용직/파트타임 요구사항'과 관련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조합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충분한 근거로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로 인해 조합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 용인, 단대별 축제·모꼬지 진행

### ▌대륙간컵 해동제 열려

해방동양학대 축제인 '대륙간컵 해동제'가 4일, 5일(화) 대운동장과 소운동장, 어문관 식당에서 열린다. 동양학대 학생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열리는 이 행사는 예년에 하루였던 기간을 올해에는 이틀로 늘렸다. 4일(월) 남자축구와 여자발야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5일(화) △남자축구 준결승과 결승전 △여자발야구 준결승과 결승전 △과별 노래자랑 △뒷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축구 우승팀에게는 평면TV, 발야구 우승팀에게는 소파, 노래자랑 우승자에게는 디지털카메라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 동양학대 사무국장 박종호(아프리카어 95)군은 "참가자를 위한 기념품과 최다인원 참가 학과를 위한 상품까지 준비한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경상대 체전 및 청년제 진행

용인배움터 경상대 축제인 '청년제'와 체전이 지난 10월 31일(목)과 11월 1일(금) 이틀간 열렸다.

축구경기만 진행된 체전에서는 경영정보학과와의 연장전 끝에 결승전에 올라온 경제학과가 부전승이었던 무역학과를 3대2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제학과는 1등 상품인 벽걸이형 전기난로를, 2등과 3등은 각각 방향제와 일회용 카메라를 받았다.

폐막식과 함께 진행된 청년제는 경상대 앞마당에서 단대 율동패인 '청년'의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새내기 장기자랑과 줄넘기 대회, 서로를 알기 OX퀴즈대회 등이 진행됐다.

이에 경상대 사무국장 김태현(경영정보 00)군은 "취지가 '하나되는 경상대'인 만큼 서로 친목도모의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라고 말했다.

### ▌동유럽대 일대협 모꼬지

동유럽대 일학년 대표자 협의회는 모꼬지가 경기도 대성리 늘푸른 마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동유럽대의 친목도모와 발전을 위해 지난 1일, 2일(토) 이틀간 열렸다. 노어, 루마니어, 유고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6개학과의 1학년 학생들 50여명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동유럽대 사무국장 금성수(폴란드어 00)군은 "이번 행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참여한 김수현(폴란드어 02)양은 "다른 과 학생들과 친해지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 7일, FBS 방송제

오는 7일(목) 4시반, 용인배움터 후생복지관 4층 소극장에서 '외대인과 함께하는'이란 주제로 제17회 FBS(외대 교육 방송국) 방송제가 열린다. 주체성있는 대학문화 창달을 취지로 한 이번 방송제는 △제1부-왕산에 얽힌 전설로 구성된 왕산의 비화 △제2부-뮤직 드라마 △제3부-교내 셔틀버스 아저씨를 주제로한 휴먼다큐, 총 3부로 구성된다. 이번 방송제에서는 연출담당 이현수(자연·화학 01)군과 기획담당 전윤석(정보산업공·생명공화 00)군을 중심으로 자체 영성제작, 편집, 촬영, 연기를 선보인다. 이번 방송제는 방청객의 참여를 위해 설문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상품으로 가방이 지급된다.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작년과는 달리 후생복지관 앞에 설치 될 스크린을 통해 외부에서도 실시간 현장중계 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실무국장 전윤석군은 "외부에 FBS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더불어 참여속에서 함께하는 외대인의 축제가 되길바란다 고 말했다.

# 아웃사이더 공연

용인배움터 락 밴드(Rock band) 동아리 '아웃사이더(outsider)'의 제19회 정기공연이 지난 10월 31일(목) 자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락 음악에 대중성을 가미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이는 것이 이번 공연의 목적이다.

19기, 20기와 여러 선배들이 함께 참여해 총 2부로 구성된 본 공연에는 드라마 '유리구두' 주제가와 그룹 '부활'의 'Never ending story' 등 대중적이고 친숙한 곡들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아웃사이더 회장 조수현(동유럽·헝가리 01)군은 "19기 선배의 공연맴버가 부족해, 새내기인 20기가 많이 힘들었다"며 "그래도 관객들의 호응이 좋아 뿌듯했다"고 전했다.

# 서울, 과 선거일정

지난 10월 29일(화) 중국어과 학생회장 후보등록 마감을 한 결과 오래균(01)군이 단독으로 등록해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중국어과 선거는 단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투표는 오는 6일(수)에 열린다. 서양어대 서반아어과도 지난 1일(금)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상윤(01)-이지성(02)조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투표는 13, 14일(목)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다.

한편, 사회과학대 행정학과는 오는 12일(화)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9, 20일(수)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 서울, 농업대중강좌

농업 대중강좌 '쌀없이 살 수 없는 그대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가 오는 5일(화) 오후 5시 30분에 서울배움터에서 열린다. 김제 농민회 정책실장 이창한씨가 강사를 맡아 오는 13일(수)에 열릴 '30만 농민대항쟁과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816호(10월 15일자) 1면의 '외대를 위하여' 기사 중 안인경교수(통역번역대학원 한노과)는 '안인경교수(통역번역대학원 한독과)'의 잘못된 표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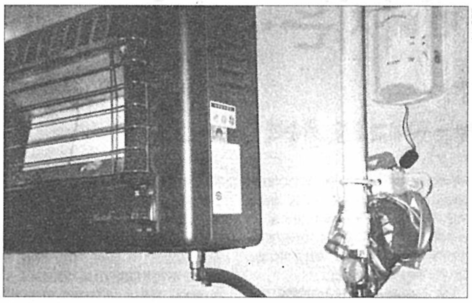
진단-양배움터 화재예방대책

# 학생회관, 화재 발생 위험 가장 높아

## 학생회관 내 전열기구 사용 및 숙식은 불법

## 추위 속 학생들의 불만 높아

양배움터 화재예방대책현황을 취재하던 중 서울, 용인 관리과 모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학생회관을 들었다. 그 이유와 대책을 알아봤다. - 편집자


김민경 기자

건국대 각 방에 설치된 난방기구

### 서울 화재 조기진압 설비현황

서울배움터는 환절기를 맞아 청량리 소방서의 불시 소방검열을 대비해 화재 관련 각종 설비에 대한 점검을 했다. 서울배움터 내 153개의 소화전과 266개의 소화기, 165개의 발신기, 1889개의 감지기, 232개의 유도등, 69개의 유도표시판 등 소방 관련 설비가 있다. 관리과장 서은택씨는 "검열시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으며 심할 경우 소방법에 의해 경찰에 고발, 형사입건 된다"며 "너무 오래되서 안되는 것이 몇 개 있을 수는 있지만 작동이 안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씨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학생회관을 꼽았다. 작년 110V이던 전압을 올해 220V로 승압하면서 학생회관에서 숙식을 하는 학생들의 전열기구 등에 의한 콘센트 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회관 난방실태

이와 관련 관리과는 학생처, 총무처와 함께 각 사무실과 동아리방, 학생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가전제품을 수거할 예정이다. 여학생휴게실 등 공식적으로 침상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학생회관에서의 숙식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열기구 사용이 불법이라면 춥지 않게 난방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학생회관 이용자의 말에 서씨는 "날씨가 영상 5℃ 이하이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점심 1시부터 2시까지, 저녁 3시부터 4시반까지 난방을 한다"며 "하루종일 난방을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전한다.

### 난방비용

서울배움터에서 사용하는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의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6500만원, 전기요금은 한 달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 난방비, 전기비 등은 모두 공공요금으로 관리과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 난방과 화재예방

한편, 학생처 학생지원주임 이재정씨는 "예전에 학생회관에서 불이 난 적이 두 번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의 위험도 있다"며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장 김재연(서양·노어 99)양은 "건대의 경우 방마다 벽걸이용 스토브가 설치되어 있어 난방이 잘되고 매일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며 "우리학교는 아침에는 난방이 잘 되지만, 저녁에는 그렇지 않다. 화재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학교측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수업 후인 오후 5시부터이다. 하지만 모든 난방은 4시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의 전열기구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경 기자

용인배움터 기숙사 실내 모습

### 용인 기숙사 화재사건

모현학사 남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15일(화) 오후 4시 50분경 남사 406호에서 발생한 이 불은 화재발생 당일 용인소방서측의 육안감식 결과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됐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인해 학교측은 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406호를 사용하던 4명의 학생들은 자체산출 결과 책, 의복 등 약 91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학교측은 신동아화재에 약 120만원 상당의 집기비품피해보상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 약 660만원의 건물피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6개월마다 사용자가 바뀌고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갖다 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화재가 발생했던 406호는 복구공사 중이며, 406호에 살던 4명의 학생들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21호와 223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학·마인어 98)양은 "학내에서 발생한 화재이고 피해가 있다면 일부분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 학생회관 난방실태

이 사건이 있은 후 관리과는 화재대비 조기진압시설 점검을 무려 3번이나 진행했다.

용인배움터 관리주임 유기찬씨는 서울배움터와 마찬가지로 가장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으로 학생회관을 들었다. 그 이유 역시 동일하게 학생들의 숙식이었다. 유씨는 용인배움터도 "관리과 내규인 난방규칙에 따라 영상 5℃ 이하이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세 시간 동안 난방을 하며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낮을 때는 보일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유동성 있게 운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생회관 이용자 김모양은 "용인은 서울보다 3℃정도 기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보다 난방시간이 짧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 학생, 난방시간 연장요구
> 건대, 방마다 가스히터 설치
> 학교, 난방대안 마련해야

### 난방비용

용인배움터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절기 한 달 평균 3만 4천리터의 등유를 사용한다. 이것은 1리터당 543원으로 계산했을 때 1864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나, 얼마 전 인상된 기름 값으로 인해 난방비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화제 예방과 난방

관리주임 유기찬씨는 "화재예방은 모든 개개인의 책임이다"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건물 내 화재뿐 아니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용인배움터에는 나무가 많아 산불도 조심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개개인은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을, 학교측은 난방시간 연장 및 난방시설 변경 등 대안이 요구된다.

### 타대학사례-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자투쟁의 결과 학생회관의 모든 방마다 가스히터가 설치됐다. 히터설치를 위해 건대는 작년 9월 가스관, 배기구, 환기구 등의 공사를 약 2개월 동안 진행했다. 각 히터 옆에는 밸브,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으며, 관리실에서 나눠준 '가스난방기구 사용설명 및 안전관리수칙'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도윤 건대 부총학생회장(94)은 "석유난로보다 히터가 더 편리하고 화재위험도 없다"고 전했다. 학생회관 관리실 근무직원도 "가스히터로 바뀐 지금이 훨씬 좋다. 석유보다 비용도 적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리 우주탐구회의 한 회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따로 전열기구가 전혀 필요 없으며 중앙난방식보다 따듯하다. 온수도 잘 나온다"고 자랑했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 사설

# 재단발전위원회에 몇가지 제안

지난달 16일(수) 재단 발전위원회의 재단 운영·발전 관련 최종 합의서가 채택됐다. 공영화를 기본골격으로 우량 기업과의 협력, 과별 국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안은 우선 교수·직원·학생 등 학원 3주체가 합의한 구체적인 대학 발전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몇 가지 더 거론되어야 할 점이 지목된다.

첫째, 구재단 세력과의 결별을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다. 16일 회의에서 합의된 재단 발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화란 '국가나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국립화나 기업주도 운영에 대비되는 개념'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계'를 지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사유화되어 재산 축적·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제 3의 공공단체나 법인의 성격을 띄게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구재단이 다시금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불허하는 조항을 정관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단발전위원회에서 이사진 구성에 대해 기초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총장 1인, 동문 2~3인, 사회 저명인사 3~4인 등 총 9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구재단 영입금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또한 사립학교 법제상으로도 이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거시적인 틀에서 사립학교 법제 정비와 함께 우리 대학 정관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구성원들이 재단발전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구재단 영입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 표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시민대학으로 탈바꿈한 상지대나 관선이사 파견을 승인받은 덕성여대 등이 지난 재단투쟁 기간 내내 학내에 잔존한 구재단 세력의 훼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는 이런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다.

둘째, 실질적인 차원의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다시금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사진 구성 부분에서 기초 합의된 사항을 보면 이사추천위원회에 총학생회장과 노조위원장이 포함된 점, 이사회 감사 또한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점 등 이사진 구성논의에서 기존에는 배제되었던 학생측이 포함된 것 등을 높게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아직도 3주체의 논의 기관인 대학평의회는 의결권이 없는 등 3주체가 평등한 구조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이번 논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런 지점이다. 용인 총학생회는 논의 초기 단계에는 대학당국이 징계를 내려서, 징계 해제 이후에는 학생대표자들의 수배(10기 한총련 대의원직 수행 관련)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재단발전위원회에서는 용인 총학생회와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하루 빨리 속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발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 총 다섯개의 합의문에 나왔지만 이는 사실 종합적,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합의안 3항을 보면 과별 '국책화 또는 부분 국립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립화와 국책화는 개념상 완전히 다른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의 통일이 필요하다. 또한 '외대만의 안'이 아닌 전체적인 한국사회 대학 발전과도 맞물리는 발전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외·대·만·평 <1>

허진

## 재학생 및 교직원 정기건강검진 실시

**일시**

가. 검사기간 : 2002. 11. 11(월) ~ 12(화) 8:30 ~ 14:00
나. 위장촬영 및 초음파검사 신청기간 : 2002. 11. 4(월) ~ 11. 8(금)

**검사결과 통보**

2002. 12. 3(화) 13:00 ~ 16:00 개인별 진료상담

**서울 캠퍼스 보건실 (구내 4036)**

**검사항목 및 검사료**

가. 흉부 X - 선 검진대상 : 재학생 (학교부담)
나. 2002학년도 건강보험 공단 검진 대상 : 교직원
다. 졸업예정자를 위한 신체검사 및 각종 건강검진
- 의료보험수가기준
(검사안내문 참조 - 각 단과대학, 대학원 교학처(부) 비치)

✚ 검진시 유의사항 ✚

검진시 반드시 공복으로 한다.
(간염검사는 제외)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장

## 2003학년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미국) 변호사 양성을 위한 미국 로스쿨 J.D. 과정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입학 설명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강당: 11/7(목) 19:00~ / 고려대학교 418회관 소극장 : 11/11(월) 19:00~)

입시주요 사항 •

| 구 분 | 주 요 사 항 |
|---|---|
| 모집학과 | 국제법학과 (3년과정) |
| 모집인원 | 39명 |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TOEFL 570점 (CBT230점), TOEIC 790점, TEPS 715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영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든 전공 가능) |
| 전형방법 | 영어구술시험 및 면접고사 |
| 제출서류 (모집요강 참조)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성적.졸업(예정) 증명서, 면접참고질의서, 기타 영어능력 입증 가능한 서류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02.11.11(월) ~ 11.18(월)<br>전형일 : 2002.11.23(토)<br>합격자발표 : 2002.11.27(수) |

국제법률대학원의 특성 •

- 미국변호사협회 (ABA)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교육환경 체공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해당 주에 한하여 미국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 전과목 영어강의 진행
- 정보통신법.지적재산권.국제통상법.Human Right's 분야의 전문가 배양
- 아시아 최대의 전문 Law School 도서관(4만여권) 및 외국법률 검색체제(Lexis, Westlaw) 완비
-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법학교육

입학상담 안내 •

- 국제법률대학원 교학실: 054-260-1713, 1202
- 모집요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국제법률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awschool.handong.edu)

(791-70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학실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ERSITY

## 2003학년도 전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 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전원 학비 장학금 전액 지급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숙식 장학금 전액 지급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강의 교재 지급
- 해외 단체 연수 실시(교비부담)
-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유학 지원 프로그램
- 해외 단기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 전원 기숙사(삼정서헌) 생활
- 다양한 T.A 및 R.A 기회 부여

1. 모집분야

| 구분 | 모집학과 |
|---|---|
| 석사과정 |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국제·공공정책<br>• 국제경영 • 사회복지 • NG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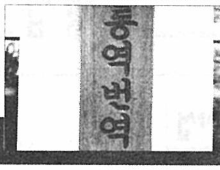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11. 11(월) ~ 11. 22(금)
• 전형기간 : 11. 27(수) ~ 12. 6(금)

3. 전형방법
• 논술, 영어(TOEFL, TOEIC 또는 TEPS 최근 2년내 취득 성적 제출) 및 면접

※ 입학원서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전형료-소액환 동봉)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평화복지대학원 교학부 (http://gip.khu.ac.kr)
TEL : 031-570-7014~9 / FAX : 031-528-7630

한반도 중심사회 이끌어 내는 - 경희대학교
www.khu.ac.kr






# 하면 할수록 맥빠지는… 번역

## 번역가에 대한 사회대우 미약
## 통역번역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번역교육도 기술적 번역에 그쳐

「어떤 글이나 문학 작품을 같은 뜻을 가지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번역'은 위와 같이 풀이돼있다.

하지만 번역은 한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번역은 나아가 한 문화권의 텍스트를 다른 문화권으로 옮기는 작업도 수반해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번역서를 접할 때 번역가의 역량에 따라 원전을 이해하는 데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나라 번역수준은 어떠한가?

우리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빈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 인문학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전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문학적 토론이 추상적으로 흐른다"고 말한다. 철학과 이기상 교수 역시 "원전 번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내용 토론은 고사하고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토론이 주가 된다"며 지식인들이 학문적 토론보다 원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는 동·서양철학 나눌 것 없이 지식인들이 외국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지식을 독과점하며 어학능력 하나로 '전문가행세'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우리말로 철학하기'란 학술단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교수는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수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였던 라틴어로 쓰인 고전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일반사람들과 고전지식과의 거리를 좁혔던 예를 들며 우리 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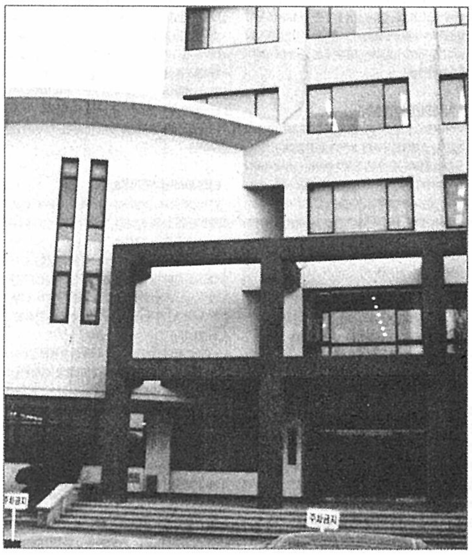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번역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번역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미미한 것을 들 수 있다. 저작권 협약에 따라 해외 서적을 번역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 협약 이전에 번역가들은 책 정가의 13%를 인세로 받았지만 요즘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료 6%를 떼고 6~7%만 인세로 받게 되어 있다. 학술서적은 보통 1천권 정도를 발행하는데 그 책의 정가가 2만원이라 했을 때 번역가는 고작 120만원의 보상만을 받을 뿐이다. 수년이 걸려서 번역해야 하는 번역가들에게 120만원이란 보상은 너무 작다.

체코어과 김규진교수는 "체코어에서는 문학작품을 다른 나라언어로 번역할 때 정부에서 책 출판실비를 지원해 준다"며 정부가 번역지원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논문발표의 보상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드러난다. 원고지 3000매 분량의 '하이데거'의 저서를 3년 정도 걸려 번역한 이기상 교수는 "학교측에서 100매 남짓의 논문 한 편을 쓰는데 30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반면 번역서적을 출간하는데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들의 실적평가 시 번역물에 대한 평가점수 반영이 미비해 번역의 영역을 좁히고 있다. 교수 사회에선 논문 1편이 70~200점의 실적으로 점수 매겨지는데 반해 단독번역서 1권은 70~100점의 실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올해부터 단독번역서 1권은 논문 2편 상당의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진흥재단 연구지원 2팀 행정원인 김석호씨는 "논문도 중요하지만 번역서는 책을 저술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소속 학생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국제회의 통역과정과 번역·순차 통역과정 중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시통역을 선호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번역전공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우리 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번역과정의 커리큘럼이 산업경제번역, 과학기술번역, 정치법률번역 등 대부분 기술번역에 치우쳐 있어 문학이나 기타 인문학을 번역하는 전문번역가를 양성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학교의 통역번역센터 보다 늦게 설립된 이화여대의 경우, 번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 전부터 번역과 통역을 구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커리큘럼에도 문학번역이라는 강의를 넣어 '번역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 번역은 문화간의 가교

1534년 자크 카르티에의 뉴펀들랜드 상륙 이후 프랑스의 캐나다 정복은 지속되었지만, 오늘날 캐나다는 영어권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 프랑스의 캐나다 상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인쇄술 문제를 들 수 있다. 식민지가 강성해져서 본국과 힘을 겨루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던 파리는 오직 일차 원료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만을 부여하면서 캐나다에 인쇄소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 반면, 영국은 정복 이후 인쇄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시와 연대기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문학을 발달시키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1798년, 아직 황제에 등극하지 않았던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시도한다.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나폴레옹은 국립인쇄소에 인력과 인쇄기를 지원 요청하고, 로마에 있던 수학자 몽쥬에게 명령해 라틴어, 아랍어, 그리스어 및 시리아어 활자를 이집트에서 자유로이 인쇄할 수 있도록 바티칸 소재 출판사를 털도록 했다. 몽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임무를 완수했고, 그후 3년간 약 160명의 학자 및 예술가들이 이집트에서 연구와 수집, 번역과 출판을 통해 환상적인 지적 모험을 수행한다. 고대의 이집트와 근대의 프랑스는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다.

> 번역을 통한 타문화 혹은 타자와의 만남은 결코 체험하지 못할 현실들을 대리 체험하게 해주고, 그 현실들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위의 두 에피소드 공히 출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그 중심에 번역의 문제가 위치한다. 굳이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타문화가 생산한 노작(勞作)들을 자기 언어로 옮기는 행위는 자신과 타자를 진실로 이해하기 위한 모습인 동시에 대상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오늘날 주변에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번역이 부차적인 학문일까? 어떤 의미에서 창작과 번역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로렌스,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등 위대한 작가들의 상당수가 외국의 주요작품들을 자기 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하던 역자(譯者)들이지 않았던가? 번역의 의도가 외국어로 된 하나의 개별적 작품을 출발점으로 삼아 언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의 의도와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도 자체부터가 문학작품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번역을 이차적인 학문이나 열등한 학문으로 간주하면서 번역을 창작의 부속물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많은 인문학자들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번역 역시 본격적인 '인문과학'이며, 언어 상호간의 친화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다루면서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인 문학을 재생산하고 또 문학의 위상을 넘본다는 측면에서 '인문과학적'이다. 게다가 번역은 오늘날 문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번역을 통한 타문화 혹은 타자와의 만남은 우리가 두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 결코 체험하지 못할 현실들을 대리 체험하게 해주고, 그 현실들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훌륭한 번역작품은 돈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뒤흔들어 놓으며, 이미지의 폭력, 속도의 현기증 앞에서도 아직 사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각성하게 해준다.

그러나 한 문화권에서 탄생한 텍스트를 다른 문화권으로, 즉 다른 해석학적 기호체계 속으로 이동시켜 그곳 특유의 의사소통 과정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많은 난제들을 안고있다. 번역 작업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단순한 매개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비평가의 안목을 갖추기를 역자에게 요구한다. 또 원어와 번역어에 대한 감각과 지식, 그 언어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이 전제된다. 그러기에 번역은 단순한 말바꾸기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의 창작작업이자 새 문화의 이식작업이다. 하나의 작품을 잉태시킨 문화와 의식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좋은 번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나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번역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품 번역이 우리에게 소위 주류 문화인 아메리카, 유럽 및 일본 문화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든지, 출판사의 상업주의 때문에 정작 많은 주요저서들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든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급조된 번역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지역편중은 타 국가와의 문화 교환을 일방적으로 만들며, 따라서 우리의 세계 인식을 왜곡시킨다. 번역을 통하여 지역간, 인종간, 그리고 문화간의 차이를 섬세하게 살려내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과 번역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첩경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빈
(불어과 강사·EU연구소 연구원)


## 2003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야간)

○ 전공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 모집과정 | 전공 | 모집인원 | 전형방법 |
|---|---|---|---|
| 석사과정 (학군제휴포함) | 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중국어교육, 일본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유아교육, 체육교육. | ○○○명 | 1. 서류전형 2. 면 접 |

○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사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사진 3매(3×4㎝)】 1부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100분율 성적환산 표기) 1부
다. 교원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라. 재직 및 경력 증명서(현직 교사에 한함) 1부
마. 추천서(學·軍 제휴 위탁에 한함) 1부
※. 체육교육전공 지원자는 교직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 교원과 직원) 재직증명서를 필히 첨부 ※. 해외에서 학위취득자는 '나'항의 한글공증서 첨부

○ 전형일정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 11. 11(월)~11. 15(금)
교부(무료):인터넷상 24시간, 접수:교학부 14:00~21:00
나. 전 형(면 접) 일 시 : 2002. 11. 30(토) 14:00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전공은 10:00부터)
다. 합 격 자 발 표 : 2002. 12. 11(수) 14:00

○ 특전
가. 현직교사(시간강사 제외)는 5학기까지 장학금 지급
나. 현직교사(시간강사 포함) 경력은 입학사정 서류전형에 가산점 부여
다. 본 대학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라. 상담심리 전공을 지원하는 각급학교(초·중등)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교육전문직 포함)로서 입학 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은 졸업 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양호교사, 사서교사 등은 이수 불가)
마.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가. 학부에서 교직기본이수 10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하고 동일 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5학기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나. 기타 자세한 교원자격증 관련 사항은 모집요강이나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
다. 체육교육 전공은 현직 교직원(교원포함)에 한하여 입학 가능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부 (02)963-6881, (02)961-4116
▶ 원서 교부는우리대학홈페이지를통해 해당 기간에 인터넷으로 합니다.
▶ 원서 접수는우리대학홈페이지의웹 상에서 본인이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합니다.(해당 기간 14:00~21:00)
▶ 웹 상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http://www.hufs.ac.kr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2002학년도 동계 영어연수생 모집

● 연수대학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

● 연수기간
2003. 1. 6~2. 15 (5주 연수, 1주 서부 문화체험)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영어연수 신청자에 대한 특전
가. 취득학점은 본교 교양과목 3학점으로 인정함.
나.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총경비
약 5,884,000원 (식비와 교재구입비 별도)

● 경비내역
가. 어학연수 관련 경비 : 수업료, 기숙사비(식비 제외), 필드트립 경비, 각종 행사비, 시설 이용료, 의료보험료, 서부 문화체험 경비
나. 항공료·여권 수속비 : 항공료, 여권 및 비자 수속비 등

● 신청서류 제출기간
2002. 10. 21(월)~11. 8(금)

● 델라웨어대학과 영어연수 프로그램 소개
가. 우리 대학과 복수학위제 추진 대학
나. 미국내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진행
다. 미 서부 및 하와이 문화체험

● 문의처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담당 황순규
(Tel: 961-4387, E-mail: interex@hufs.ac.kr)

2002. 10
대외협력본부장

## 다국어 검색서비스 이용안내
## 도 서 관

● 서비스 내용
문자코드가 지원되지 않아 그 동안 검색시스템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고, 카드목록 형태로 서비스해오던 베트남어, 아랍어, 이란어, 태국어 및 힌디어 등 5개 특수외국어자료를 UNICODE를 도입하여 WEB에서 원어로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다국어 검색서비스를 10월 2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서비스 방법
MS Windows 2000 이상의 PC에서만 다국어 언어코드가 제공되므로 당분간은 Windows 2000 이상의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원어로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료실 각층별로 다국어 검색전용 PC 2대씩 총 6대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인도서관은 자체 계획에 따름)

● 서비스 이용시간
예산부족으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당분간 다국어 검색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평일 : 09:00 ~ 21:00 /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운영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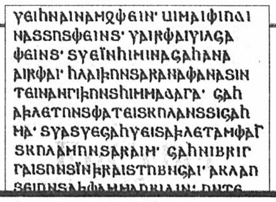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Windows 98 PC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다국어 검색시스템 보완 예정.
▶ 다국어 서버를 확충하여 24시간 검색서비스 제공 예정.
▶ 5개 외국어 이외의 여타 외국어도 추후 서비스 제공 추진

## 입시홍보도우미 모집

입학관리과에서는 2003학년도 신입생모집에 대비하여 입시홍보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외대인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본교 서울.용인 캠퍼스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2 모집인원 : 00명
3 근무시간 : 주2~3일(공강시간을 활용)
4 보 수 : 아르바이트비 지급(시간당 3,500원)
▶ 근무중 중식 제공
5 근무기간 : 11월 11일~2003년 2월말
6 근무내용 : 입시 상담(전화 및 인터넷),
▶ 각종 입시박람회 행사보조, 입시업무보조 등.
7 지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0월 31일(목)~11월 08(금) 17시
8 지원서 교부 : ☞홈페이지 Download
☞서울캠퍼스 입학관리과(본관 1층)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지원과(본관 1층)
9 공지사항 : 근무여부는 지원서 제출시나 추후에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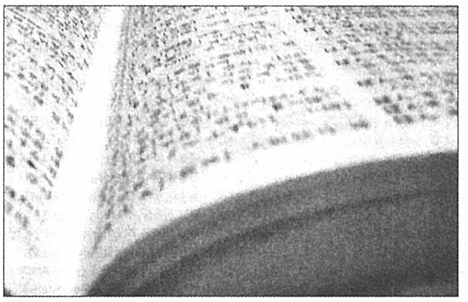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 문의는 입학관리과(02-961-4473)로 문의바랍니다.



## 더이상 번역을 찬밥대접 하지 마라!
## 번역은 당당하고 싶다

우리학교에서 번역의 위상을 재정립할 방안은?

# '번역상' 기회… 활발한 사전편찬도 요구



번역의 위상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지금, '외대'에서 번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학원에서는 번역의 위상을 다시 살리려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서울배움터 대학원건물 이곳저곳에는 '제 1회 외원번역상' 수상내역을 알리는 공고가 붙었다. 이은주(중국어 박사과정 1학기)씨가 번역한 재불중국인 극작가 가오싱지엔(高行建)의 정거장(車站)이 최우수작으로 뽑힌 이번 외원번역상은 처음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응모공고를 했을 때 20명이 지원할만큼 호응이 뜨거웠다.

외원번역상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국장 김동원(일반대학원 신방과 박사 1학기)군은 "현재 번역은 문학뿐아니라 사회과학 및 여타 학문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에 비해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하며 "외대가 가진 다양한 언어 및 지역연구의 장점이 한국의 학술풍토에서 번역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학원 재학생·수료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외국문학작품 또는 여타 학문분야 이론서의 한국어 번역을 공모했던 이번 외원번역상에 접수된 작품은 최종 11편이었다. 응모한 문학계열 7편, 인문·사회계열 4편을 전문번역가 9명이 분야별로 1차심사를 맡은 후, 통과된 5편의 작품을 전문번역가 1명이 마지막으로 심사했다. 최종심사의 주된 기준은 '원작을 얼마나 충실히 번역했는가' 하는 성실성이었으며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냈는지 △문장구성시 어법에 충실했는지 등 '우리말'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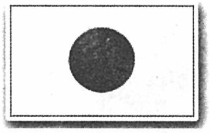
김동원군은 "시상한 학생들이 심사위원들의 충고를 받아 더욱 좋은 번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수상하는 작품들을 총학생회 학술지에 싣는 등 외부에 발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번역의 기초가 되는 사전편찬에 대해서도 여러 구성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학교 출판부에서는 현재 총 18권의 사전을 편찬했으며, 12권의 사전이 출간 예정중이다. 우리학교의 특성상 특수언어의 사전이 많은데, 인력 등의 문제로 '루마니아어·한국어 사전', '한국어·이란어 사전' 등 학교에 개설돼 있는 언어학과의 사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 교·강사들은 "번역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6년을 투자한 '한국어·스웨덴어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김상열 교수(스칸디나비아어과)는 "공문같은 기계적인 번역이 필요할때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순수문학의 경우에도 사전은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없는 번역이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불어과 이상빈 강사 또한 사전의 중요함을 역설하며 "프랑스에는 '정신분석사전', '반역사전' 등 주제별로 사전이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는 아직 전문적인 사전이 없다"고 전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번역왕국' 일본 번역으로 근대화

흔히 일본을 '번역의 왕국'이라 한다. 전세계에서 출간되는 중요한 저작들이 거의 빠짐없이 일본어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번역시대'의 시작은 1774년, 도쿠가와 막부시절 에도의 의사 스기타 겐파쿠가 죄수의 해부된 인체를 보고 나가사키의 통역관을 통해 입수한 네덜란드어 해부서의 정밀성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해부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기타와 그의 동료들은 그 해부서를 일본어로 번역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들은 변변한 사전도 없이 3년만에 그 책을 '해체신서(解體新書)'라는 이름으로 번역해낸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근대화를 시도했다. 이때 일본에선 군사·법률 같은 나라 세우기에 직접 필요한 책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화학·의학·문학·예술 등 온갖 분야의 책이 다 번역됐는데, 메이지시대 초기에 벌써 '몇 만 권'이 일본말로 옮겨졌다.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번역서 읽는 법을 안내하는 책자 '역서독법'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17세기말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국어를 외국어로 의식한 오규 소라이(1666~1728)의 존재는 번역문화의 확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 그는 주체철학을 비판하고 '논어'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읽는 '논어'는 외국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붕이 자원방래 하니' 하는 식으로 논어를 읽어서는 일본냄새가 나지 않는다. 완전히 일본말로 번역해 읽자"며 일본식으로 바꿔 읽었을 때, 즉 번역했을 때만이 그 의미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규를 통해 활성화된 이런 창조적인 번역은 일본의 근대화성공의 주요한 비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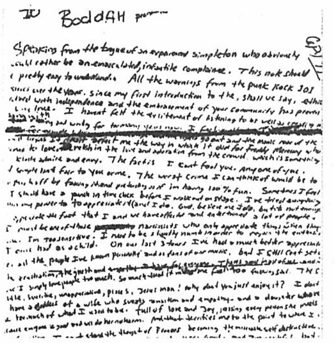
일본의 본격적인 근대화과정에서 번역은 단지 외국 문물의 수용행위가 아닌, 하나의 국가 생존 전략이요 프로젝트였다. 메이지시대의 번역에서 역사물이 많은 까닭은 문명 특히 서구문명을 그 바닥으로부터 탐구해 자국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다시 잡자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도올 김용옥은 "한국에는 번역은 고사하고 표점(標点)작업이 된 '주자어류' 조차 없다. 일본인들은 주자를 논하기 앞서 주자의 저작들을 정확한 자기말로 이해했다. 이런 차이가 양국의 주자학 전개에 다른 양상을 가져왔다"고 전한다.

양창모 기자

만나보기 - 라영균 외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

# "전문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는 '번역원'을 세워야"



"번역은 자구해석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된다" 라영균 외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한다. 현재 외국문학연구소는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번역·출판 등 크게 3가지 일을 하고 있다.

라 교수는 "90년대 이후 패러다임이 '문화'로 옮겨간 이래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번역은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영상매체보다 문화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텍스트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이 이해도를 더 깊게 한다"며 그 나라의 텍스트를 소개하려면 '번역'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전문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우수인력들이 많은 우리 학교에선 이들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고 그는 지적하며 전문적인 '번역연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학교 출신 중에는 유명한 번역가가 많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한데 묶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번역원'과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번역을 해오면서 쌓인 방법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통해 번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전문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도 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문학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언어지식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이해가 바탕된 상태에서 번역적 기술이 더해지면 금상첨화라는 얘기다.

앞선 기사에 언급한 대로 우리학교에 통역번역대학원이 있지만 대학원에서 다루는 번역은 기술번역쪽에 가깝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인문학을 바탕으로 둔 번역을 담당할 곳이 없는 것이다. 라교수는 이런 번역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번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번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교측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외대의 특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대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당당한 시작,
20대 캐릭터 정장 J. HASS 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파크랜드 매장에서 만나십시오
겨울정기세일 30~20% ▸기간 : 11월 1일~11월 24일
나의 첫 정장
J. HASS
by ParkLand

모스크바 인질극 사태를 낳은 체첸과 러시아의 관계 고찰

# 테러인가, 독립투쟁인가?

얼마 전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 '문화의 집' 극장에서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체첸 반군들의 대형 인질극이 있었다. 반군들은 관객과 연기자 1천여명을 인질로 잡고, 건물 전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들의 요구는 "체첸에서의 러시아군 철수"였다.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즉각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한 독가스에 의해 인질들을 포함한 100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체첸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왜 그러한 극한적인 방법을 썼던 것일까? 한편, 러시아는 왜 그렇게 무자비한 진압을 했던 것일까?

### 체첸과 러시아의 끈질긴 악연

러시아 남부 흑해와 카스피해를 잇는 1200km의 카프카즈 산맥은 예로부터 우랄산맥과 함께 동서양의 경계로 일컬어져왔다. 이 지역에는 체첸, 잉구쉬, 쿠르드, 다게스탄을 비롯한 50개 이상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영토를 확장해 오던 제정러시아는 19세기에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

많은 민족들이 차례로 러시아에 무릎을 꿇었지만, 체첸은 1817년부터 50여년간 전쟁을 벌여 인구의 절반이 희생되고 나서야 제정러시아에 편입됐다. 역사적으로 체첸은 가장 오랫동안 러시아에 항거해온 민족이다. 이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또다시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22년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체첸을 자치주로 편성, 다시 1934년 인접한 잉구쉬 자치주를 통합해 체첸-잉구쉬 자치주를 구성하고 1936년에는 이를 자치공화국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체첸과 러시아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1937년 스탈린은 체첸-잉구쉬 공화국을 비롯한 북카프카즈 전역에서 지식인과 당간부에 대한 숙청에 착수해 10만명 이상을 체포하고 처형 및 강제추방시켰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군과의 협력을 우려한 스탈린에 의해 다시 50여만명이 카자흐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다. 이러한 고통과 핍박의 역사로 체첸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의와 저항의식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때, 강제이주 대열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험준한 카프카즈 산맥에 숨어서 빨치산 활동으로 소련군을 괴롭혔다. 이른바 '해빙기'인 1957년이 돼서야, 명예회복과 함께 고국으로의 귀환이 허용되고 다시 자치공화국이 됐다.

1991년 소련이 '공중분해' 되면서,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구성공화국들은 모두 분리 독립을 하게 된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의 자치 공화국이던 체첸도 이때를 틈타 독립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 체첸전쟁 : 독립투쟁 대 반란진압

마침내 1994년 러시아는 대규모 군대를 체첸에 파병했다. 러시아군은 한 달여 만에 수도인 그로즈니를 점령했지만, 선조들의 뜨거운 피를 이어받은 체첸 반군들은 해발 5000km에 이르는 카프카즈 산맥 깊숙이 숨어서 끈질기게 저항했다. 장기전에 지친 러시아는, 독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01년까지 미루기로 하고 96년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99년, 당시만 해도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던 총리(옐친 사임 이후에는 대통령 직무대행) 푸틴은 다시 15만명의 대군을 체첸에 파병했다. 대대적인 작전으로 6만명이 넘던 반군들 가운데 겨우 4천여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두 번에 걸친 체첸전쟁은 체첸 인구의 20%에 가까운 20만명을 숨지게 하고 30만명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러시아 역시 2만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고,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진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됐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전쟁을 주도한 대통령 푸틴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 러시아는 왜 체첸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체첸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독립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러시아는 슬라브족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카프카즈 지역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자치공화국을 이루어 살고 있다. 만일 체첸의 분리 독립을 승인할 경우, 지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다른 민족들도 독립을 요구하고 나올 공산이 크다. 이미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15개 구성공화국이 독립했고, 더 이상 분리를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카스피해 유전을 둘러싼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카스피해는 가히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예전에는 카스피해 인접국이 소련과 이란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현재는 러시아, 이란 외에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6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당연히 그만큼 러시아의 지분도 대폭 줄어들어 버렸다.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체첸은 연간 260만톤의 원유 생산지이자 주요 정유시설의 소재지이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카스피해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송유관이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셋째,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완충지대였으며, 지금도 러시아에게는 터키, 이란으로 나가는 서남부 국경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 어떻게 체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러시아와 체첸반군 양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유일한 해결방법은 국제사회가 중재안을 내는 것이다. 체첸의 정치·외교적 독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경제·안보적으로는 큰 테두리 안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 체첸의 독립 요구를 수용하되,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체첸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와 비슷한 식민과 억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소민족의 시각이 아닌 강대국의 시각으로 보기 쉽다. 모든 테러가 범죄이지만, 일제치하 독립투쟁 때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테러도 있다. 테러가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군 철수와 독립이라는 분명한 정치적·도덕적 동기를 가지고, 그와 무관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했던 이번 인질극은 명백히 독립투쟁의 한 방법이었다. 사태 진압과정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독가스 사용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의 강경진압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지금도 체첸은 싸우고 있다.

제성훈
〈정치외교학과 석사 1학기〉

## 통신원 칼럼 - 중국편

# 나는 남조선 출신?

필자 백휘정(독일어과 92년 졸)씨는 중국 심천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광동성의 주간 교민소식지인 〈교민세계〉(www.kyomin.org)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산 지 이제 4년이 넘었으니 어느 정도 중국인과 중국식에 익숙해진 셈이라 얼굴도 비슷한 중국인들에게 생소함이나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머머… 저 '중국사람' 좀 봐… '중국 사람들' 왜들 그러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뭐 저래?"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저 같은 인간이며 이웃인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저를 만나면 외국인으로 생소하게 여기거나 재미있어하거나 합니다. 너무나도 외국인다운 어투의 중국어로 말이라도 걸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쑥스러워 합니다. 중국에 살아서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주위가 맨 중국인들이라 늘 대하기 때문에 그들 중국인들이 제게 이미 외국인이 아니고 이웃으로 느껴진다고 해도 전 이곳에서 항상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에 한창 월드컵으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어느 이웃으로부터 남조선 출신이냐 북조선 출신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한이냐 북한이냐' 라는 물음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런 식의 질문을 받으면 그때서야 "아~그렇지. 북한이 있었지" 싶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겨우 인식합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타의로 외국에서 살아가거나 자의로 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젊은 한국인이 점점 증가한다는 요즘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싸운 흔적과 상처를 지닌 채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의 국민입니다

심천에서 살면서 교민지를 만드는 관계로 가끔 도와달라고 전화를 거는 탈북자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뭐 남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무슨 수로?" 진땀을 빼며 무력한 입장을 설명하지만 그들은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쉽게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하고 비빌 언덕을 찾습니다.

한번은 자칭 탈북자청년을 만나서 굶지나 말라고 만나서 돈을 쥐어주기도 했는데 저 뿐이 아니라 여러 교민들의 돈을 얻었더군요. 한국인 교민사회에서 만든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보고 죽 전화를 했나 본 데 그가 정말 탈북자인지 탈북자말투를 하는 사기꾼 조선족동포인지에 대한 의심이 교민들 사이에서 일었습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였는지를 의심하는 일도 께름칙하지만 그가 진짜 탈북자라고 해도 서글프고 가짜였다고 해도 서글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보니 한국이라는 분단국이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역사의 책임을 함께 감수해야 하는지 국가관이라는 것은 뭔지, 민족정신은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게다가 한국을 떠나 산 지 12년이 넘은 저 같은 얼치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어때야합니까? 어렵습니다.

## 국제단신

### 브라질 첫 좌파대통령 탄생

브라질 헌정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다. 브라질 최고선거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일) 이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이하 룰라·57) 후보가 집권 사회민주당의 주제 세하(60) 후보를 누르고 신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룰라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수의 61.5%인 5200여만표를 얻어 1998년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 현 대통령의 최다득표 기록(3500여만표)을 경신했다. 룰라 후보는 수만명의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평화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 미주에서 브라질이 훌륭한 구실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특히 "시장이 우리가 시장에 보여주게 될 존경심과 같은 정도의 존경심을 갖고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세하 후보는 38.5%를 얻는 데 그쳤다.

브라질내 격심한 빈부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밑바닥 서민의 '고단한 삶'을 살았고, 노동당(PT)을 결성해 4번의 도전 끝에 국가 수반에 오른 그는, 빈부격차와 농촌의 피폐, 경제 저성장 등 브라질 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페르난도 엥히키 카르도주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실패에 두고 있기에 기존 정책을 뒤엎는 과감한 방향전환이 예상된다.

### 체첸주둔군 감축계획보류

러시아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체첸 주둔군 감축 계획을 보류한다고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3일(일) 발표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바노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자살 테러가 계획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체첸 주둔군 수를 줄이려는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
"The Value Networking Company"

대한민국 대표 초고속인터넷 Megapass를 이끌어 갈
'대학생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모집대상 | • 만 19세 이상의 현 재학중인 대학생 (선정 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고객) |
| 모집인원 | • 총 50명 (10개팀 × 팀당 5명, 팀 단위로 모집하며 개인별 신청은 불가) |
| 모집기간 | • 2002년 10월 21일 ~ 11월 10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T 홈페이지(www.kt.co.kr) 또는 메가패스 홈페이지(www.megapass.net)내, 'Pro-MegaMania' 신청서 작성<br>• 신청단위 : 팀원 5명을 구성한 후, 팀장이 대표로 신청 |
| 선발방법 | •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 합격자 발표 | • 발표일 : 2002년 11월 12일 (예정)<br>• 인터넷 홈페이지(www.kt.co.kr/www.megapass.net)에 공지하며, 합격자는 e-mail 및 전화로 개별 통보 |

| | | | |
| --- | --- | --- | --- |
| 프로 메가매니아 (Pro-MegaMania)란? | • 고객의 입장에서 메가패스의 장·단점을 판단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내는 대학생 모니터 요원 | | |
| 활동기간 | • 2002년 11월 15일 ~ 2003년 5월 30일 (약 6개월)<br>• 발족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02년 11월 15일 ~ 11월 17일 | | |
| 활동내용 | • 개인별/팀별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리포트 제출<br>• 서비스, 품질, 마케팅활동, 광고 등에 관한 모니터 활동 | | |
| 제공혜택 | 기본혜택 | 1개월마다 | • 개인: 월 활동비 20만원 지급<br>• 팀: 월 우수 2개팀에 장학금 100만원 지급 |
| | | 활동종료시 | • 개인: 우수 5명 선정, 장학금 200만원 지급<br>• 팀: 우수 2개팀 선정, 유럽 배낭여행 상품권 제공 |
| | 기타혜택 | • 6개월간 Megapass 무료 제공<br>• 각종 행사시 참여 우선권 부여<br>• 모니터 요원 활동을 위한 온라인 공간 제공 | |

※자세한 사항은 www.kt.co.kr 및 www.megapass.net를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인터넷
Megapass

#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 마감 : 매주 금요일 자정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명수당

## 북한 핵과 우리 정부의 역할

정기웅
〈'사이버 정치' 강사〉

북의 핵무기 보유 시인으로 한반도가 온통 긴장에 휩싸여 있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예견돼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를 일단락지었다고 여겨지는 94년의 제네바 합의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북한이 KEDO의 사업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핵 개발을 다시 전면으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켜 나가는 이른바 핵 옵션 유지 정책을 택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제네바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아 애당초 자신이 얻고자 했던 체제 생존 목표를 획득할 수 없거나, 제네바 합의의 이행 도중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체제개방 등 합의 이행에 따른 여파가 체제 생존에 위협으로 작용할 때 다시 핵무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던 바, 9·11 테러 이후 지속된 미국의 강경한 외교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다시 전면에 부상시키게 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93년 3월 12일 북이 NPT 탈퇴 선언을 함으로써 전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때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의 갑작스런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사태가 확산된 점이라든지, 불가침 조약을 앞세운 미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철저히 배제하려 하고 있는 점 등 많은 면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태 해결이 93, 94년 미·북 핵 협상과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며, 국제적인 상황 자체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과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

핵 개발과 관련해 북은 그 동안 자신들이 미국에 맞서 강력하게 키워온 국방력에 의해 한국민들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도 북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긍하면서, 통일이 되면 결국 북 핵도 우리 것이 될테니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이 갖는 국제적 성격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핵 보유는 우리 민족의 생존이 아니라 파멸을 담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은 '핵'을 정치적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조속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에게 '핵' 없이도 체제 생존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정부 뿐이다. 93, 94년 미·북 대화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우리 정부가 어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당면한 북 핵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 러시아 테러극의 씁쓸한 결말

무력 진압. 러시아 정부의 선택은 그것 뿐이었는가? 부시, 블레어 측은 얘기한다.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고집스런 푸틴과 한패가 될 절호의 찬스인데 어떻게 놓치겠는가? 골치 덩어리 체첸을 마음놓고 두들겨 패줄 명분이 생겼으니 러시아는 강대국들의 '테러와의 전쟁' 슬로건을 목소리 높여 외칠지도 모르겠다. 좋다. 테러리즘은 분명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과연 잔악무도한 괴한들을 처치하고 무고한 인명을 구해내기 위한 것이었나? 테러와의 전쟁이 필요하다면 그 명분은 과연 무엇인가? 러시아가 강대국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카프카즈의 풍요로운 지하 자원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함인가?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테러가 나쁜 이유는 그것이 평화로운 삶에 돌을 던지기 때문이 아닌가? 국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최소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아니던가?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테러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국가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유 등에 인간의 생명이 묻혀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진압은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테러범들이 먼저 무차별 사격을 했기 때문에 진압에 들어갔다고 언론은 발표했으나 사실 사상자들의 사망, 부상 원인은 진압 부대가 살포한 가스때문이었다. 그것도 단순 마취 신경 마비를 위한 가스가 아니라 생명에 유해한 가스였으며 그 살포량도 적정량을 훨씬 넘어섰다. 어쩔 수 없이 사전 진압을 해야 했다면 최소한 사후 조치는 미리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것 조차 없었다. 진압 직후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들은 당국이 가스를 살포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함구한 채 '당신들은 부상자들이나 구해'하는 일방적 통지만을 받았던 것이다. 들것도, 호흡기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송,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났다고 한 의사는 밝혔다. 과연 이러한 조치를 두고 인명을 구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부는 최소한 테러리스트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은 테러리스트들과 똑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는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극장장 바실리예프는 사후 인터뷰에서 테러범들은 가스가 살포되자 인질들에게 의자 밑으로 몸을 넣고 고개를 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포로들의 신변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테러범들을 변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너무도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극장에서의 테러극은 마무리되었지만 거리의 폭력극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러시아의 극우 민족주의자, 스킨헤드들은 테러범들을 응징하기 위해 카프카즈 및 중앙 아시아 출신들에 대한 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거주 유색 인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극렬 민족주의의 행태를 비판하지만 이번 참사극을 보고 난 후 어차피 그 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혜승 (러시아어과 강사)

## 쌀은 민족의 주식이자 우리의 혼

총학생회는 가을농활 후 10월 한 달간 'WTO 쌀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우들은 수입쌀이 농민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 식량이 무기화되는 세계추세에서 쌀수입이 식량자급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동의하며 지금까지 1천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서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궁금해 한 두가지 질문을 답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많이 들었던 질문은 '값싼 수입쌀이 들어오면 서민들에게 이익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일인당 하루 쌀값은 603원이고, 한끼 쌀값은 201원이다. 라면은 고사하고 껌값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다. 현재 우리가 먹는 우리쌀 가격은 절대로 비싼편이 아니다.

수입쌀은 우리쌀에 비해 훨씬 싼 편이다. 우리쌀 80kg에 16만원 정도인 반면 미국쌀은 3만 8천원, 중국쌀은 3만원 정도이다. 수입쌀이 싼 이유를 보자. 미국은 정부가 한 농가에 1억 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중국은 정부가 농자재와 농지를 거의 무상으로 중국농가에 제공해 준다. 반면 우리 쌀농가는 농자재와 농지세가 쌀가격 형성에 4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역시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우리쌀은 수입쌀에 비하여 비쌀 수 밖에 없다.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가는 쌀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에 그렇다. 따라서 국민들은 수입쌀에 의존해 생활하게 된다. 이때도 쌀가격이 쌀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석유의 경우 산유국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다. 쌀가격도 수출국들이 정한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1994년 일본에 흉년이 들었을 때 평상시 220달러(1톤당)하던 국제쌀값이 갑자기 650달러로 폭등했었다. 650달러를 주고 쌀을 사먹던가, 굶던가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던 일본의 예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둘째로 '개방화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쌀수입을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쌀이 하나의 상품이라면 쌀도 개방 예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쌀은 하나의 상품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쌀수입은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다. 또 쌀은 우리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전체 농가의 78%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가소득에서 5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농가의 0.9%가 식량이 아닌 수출을 목적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쌀도 자동차, 냉장고 등과 같이 수출·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에게 쌀 시장을 열 것을 강요하고 있다.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에서 프랑스는 영화산업을 '민족의 혼'이라며 미국의 영화산업 개방 요구에 맞서 예외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도 '쌀'이 민족의 주식이자 '민족의 혼'임을 강하게 주장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민석
(서양·영어 97,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 반전 평화 집회에 다녀와서

지난 주 토요일(10월 26일) 인사동에서 열린 반전평화 국제 행동의 날 집회에 다녀왔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모토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우리 나라에서만 열린 집회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그야말로 '국제연대행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어 준비해 온 피켓이 몹시 날리고 사람들은(특히 내가) 매우 추워했지만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기만은 뜨거웠다. 집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발언과 노래 등으로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종묘공원까지 행진을 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참여연대의 장유식 간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깡패행위며 불량수퍼테러행위라고 역설했고,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선위원장은 세계도처의 반전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99년 동티모르, 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지레 알아서 이 더럽고 명분 없는 전쟁에 지원을 하려한다고 비난했다. 여러 발언자 중 특히 기억에 남았던 사람은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던 차혜미양이었다. 그녀는 테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추모해야 하지만 작년 미국의 공격으로 죽어간 아프가니스탄의 죄없는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당차게 말해 사람들의 큰 호응을 샀다.

이번 집회에서 내가 놀랐던 점은 다른 집회와는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했다는 점이었다. 용기를 내어(그래도 외대생인데!) 'Don't attack Iraq!'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외국인에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회에 참여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뉴질랜드 반전운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현재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미국의 전쟁을 지원할 모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나도 짧은 영어로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전쟁에 지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대답했다. 처음 만난 외국인과 몇 마디 안 되는 대화를 나누고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다. 이렇게 반미감정이 전세계적이라는 점이 신기했고, 또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오면서 '내가 반전을 외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며칠 전 미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열린 이라크 전쟁 반대집회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는 한 사람 한사람 시민들의 반전 '계란'들이 결국 베트남전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었던 베트남전을 연상시켰고 나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민중의 힘을 믿기로 했다.

김민지 (서양·불어 00)

외대학보 816호 비평

## 난감했지만 유익했던 '월경' 기획

초등학교 6학년때, 학교에서 보여준 성교육비디오로 처음 '월경'을 알았다. 어느 내용인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비디오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찜찜했던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못 볼걸 본 듯한' 초등학교 6학년의 내 생각이 전혀 진화되지 않아서일까, 전체회의에서 사회기획 아이템으로 '월경'이 채택되었을 때 난 상당히 난처했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여학생들을 취재할 때 변태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정작 좋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월경을 경험하지 않는) 남성인 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취재처는 서울배움터의 여학생위원회였다. 제 1회 여성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던 그녀들은 바쁜 와중에도 기자의 집요한(?) 취재에 선뜻 응해주었고, 그녀들이 건네준 2권의 책-'초경파티'와 '남성이 월경을 한다면'-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머물러있던 월경에 대한 내 생각을 끌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취재요건 속에서(기자의 한 막역한 친구는 취재도중 도망치기까지 했다) 여학생위원회는 큰 도움을 주었다. 여학생위원회와 함께 선뜻(?) 취재에 응해준 사람들은 학보사 내의 여성 동기와 선배들이었는데 취재하면서 그녀들에게 한번도 월경을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신경도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보에 실린 기사에 우리학교와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는 등 반성해야 할 점도 많지만, 취재자체가 유익이 된 것 같아 기쁘다.

훕스라이프(HUFSLIFE) 게시판에는 '외대학보는 외대분교학보인가?'란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려져있다. '학보가 1면부터 8면까지 대부분이 용인배움터 사안으로 점철돼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읽고 뜨끔했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서울배움터 정기자가 1명밖에 없는-가 있지만 독자들에게 "힘드니 봐달라"는 말을 할 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글쓴이의 감정적인 글과 상관없이, 학보가 양배움터간의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다. 반성하고, 앞으로 좀더 분발해야겠다. 양창모 기자

# 생활정보

### 삽니다

□매트리스
군용 접는 매트리스, 일반 매트리스 어느 쪽도 좋습니다.
연락처 016-4287952

□워키토키
1.5km 반경 수신가능 원하며 수량은 3개를 원합니다.
연락처 ultrasaru@hanmail.net

□맨큐 거시경제학
연락처 016-9885-1269

□It's teps 책
연락처 016-730-7148

□책장, TV 구합니다
책장은 4~5단이었으면 하고 TV는 리모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011-855-1759

### 팝니다

□중고싱글침대
연락처 011-9934-4947

□이상훈교수님 레포트 참고용 서적
'일본의 갈길을 생각한다'
구입가 15,000원 판매가 5,000원
연락처 016-735-3044

□전기포트, 가스렌지
가스렌지 불 샛 있음
판매가 각 5,000원 연락처 016-766-1540

□삼성 무선 키보드 세트
구입가 65,000원, 판매가 35,000원
연락처 win980@freechal.com

□엡손 잉크 카트리지
컬러 잉크의 기종대응은 Epson stylus color 460/660/670/760/860/440H/640H 이며
흑백 잉크 기종대응은
Epson stylus color 440H/500H/600H
Photo,Photo 700/710/EX/EX2 입니다
판매가 47,000원 / 각개 판매 가능합니다
연락처 letyourheart@msn.com

□롱맨 컬처 영영 사전
상태 양호 판매가 35,000원
연락처 011-9307-3810

###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주말 서빙 구합니다
오후 8시~새벽 4시 / 일요일~새벽 1시
시간과 급료는 조정 가능
연락처 02-957-3734

### 주거정보

□서울배움터 딩동슈퍼 근처 자취
보증금 200 월 25
방 두 칸, 장롱 둘
연락처 02-962-0221, 011-9025-4747

□아이비리그 오피스텔
12평형 전세금 4800~5200
월세 다양 / 관리비 5 / 분양시 6500
연락처 962-6733, 011-312-6732

□서울배움터 후문쪽 신축하숙집
합방 33만원 방 있습니다
연락처 02-3295-1178

□전세 3000 / 보 1000 월 20, 보 1500 월 15
방 둘, 저녁 7시 이후 통화 가능
연락처 964-0251, 016-241-0251

□서울배움터 패밀리마트 골목 하숙집
합방 33, 독방 43, 여자만
연락처 968-7178

□서울배움터 후문 자취방 있습니다
보 200, 월 25
연락처 017-706-9707

□쪽문 자취
보 100, 월 24 / 남자만
연락처 02-962-2926 011-227-2474

□회기동 신현대 아파트 자취방
방 한칸 / 보 100, 월 25, 관리비 3
남성 사절합니다
연락처 02-966-3731, 016-320-6796

□용인배움터 근처 원룸
연락처 031-339-1045, 019-380-5425.

### 알림

□입시 홍보 도우미 모집
1.지원대상 : 본교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2.모집인원 : 00명
3.근무시간 : 주2~3일(공강시간을 활용)
4.보 수 : 시간당 3,500원, 근무중 중식 제공
5.근무기간 : 11월 11일~2003년 2월말
6.근무내용 : 입시 상담(전화 및 인터넷), 각종 입시박람회 행사보조, 입시업무보조 등
7.지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0월 31일(목)~11월 08(금) 17시
자세한 내용 문의는 입학관리과(02-961-4473)로 문의바랍니다

□2002 동계 미국 델라웨어대 영어연수생 모집
1. 연수기관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영어연수원
2. 연수기간 : 2003. 1. 6 ~ 2002. 2. 15
5주 연수, 1주 서부문화체험
3. 소요경비 : 약 5,884,000원(식비와 교재비 별도)
4. 학점인정 : 3학점 (교양과목)
5. 신청기간 : 2002. 10. 21(월) ~ 2002. 11. 8(금)
6. 문의처 :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담당 황순규 (Tel:961-4387)

□용인캠퍼스 교양 특강 안내
1. 일시 : 2002년 11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용인캠퍼스 교양관(본관) 201호
3. 연제 : "결혼과 이혼의 경제학"
4. 연사 : 안항림 교수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성문제상담실 강연회
1. 일시 : 2002. 11. 1(금) 17:00~19:00
2. 장소 : 대학원 6411호
3. 연제 : 연애 File- 대학생의 사랑, 연애 그리고 성
4. 연사 : 채규만 교수

백지 대자보

## 대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철새정치인들에게 한마디!!

-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딨냐? -김민석-
- 당신들은 진정 이 시대의 야인입니다. -안재모-
- 열심히 옮기는 당신~ 떠나라 -대선카드-
- 조류 사전에 추가요 -명답-
- 먹고 살자고 하는 것, 봐 줍시다. -이회창-
- 그게 바로 정치다. -정치인-
- 허경영 뽑아 전원 구속 시킵시다. -민주공화당 지지자-
- 모든 명수당으로 집합! 이곳에서 오리랑 같이 헤엄쳐 다녀라 -교관-
- 그런 ★들 뽑아준 닭대가리가 국민이잖어 ㅡㅡ; -통닭집 아줌마-
- 곧 모두에게 버림받는 추운 겨울이 다가올테니 돈 많~이 버세요. -김정은-

진단 - 대학내 커닝현실

# 커닝의 유혹 앞에 자유로운 당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은 지난 중간고사에서 커닝의 유혹에서 자유로웠는가?**
**지금은 시험시간, 전날 있었던 술자리와 평소 꼼꼼히 듣지 못한 수업으로 인해 지금 답안지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당신.**
**마침 옆자리에는 과 톱이 무방비한 자세로 답안지를 메우고 있고, 주위에는 쪽지를 돌리고 있는 녀석, 고개를 박고 책상 위에 미리 써둔 내용들을 열심히 답안지에 옮겨 적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인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감독관은 책만 응시할 뿐 자신에겐 관심도 없는 듯하고…**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에 다니며 지식을 탐구한다는 '대학생', 당신!!**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높은 학점인가 아니면 지성인으로써의 자존심인가?**

## 다양한 방식의 커닝법

공대 01학번인 김군은 "한번은 시험시간에 책을 펴들고 커닝을 하는 학생을 본적이 있다. 실제로 쪽지를 돌리는 학생들도 있고, 시험 전 책상위에 답을 미리 써놓고 있다. 그럴땐 가끔 나만 멍청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커닝을 시도한다. 김군의 말처럼 시험시간에 책을 펴놓고 대범하게 거사를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책상위에 미리 예상답안을 써놓거나, 고등학교 때 주로 사용하던 깨알같은 글이 적힌 쪽지등을 준비해간다. 교양수업처럼 미리 예상문제를 알려주는 시험의 경우 미리 얻어둔 답안지에 답을 반정도 적고 시험에 들어가 나머지 반을 마저 쓰고 나오는 대범한 컨닝법을 동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여러 통신장비가 발달한 요즘에는 PDA와 핸드폰등을 사용한 컨닝 사례도 늘고있다.

## 수업에 따라 커닝빈도가 다르다.

커닝하는 학생수는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교양수업의 경우 전공수업보다 배 이상 커닝률이 높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시험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교양은 시험준비를 소홀히 한다. 또한 20-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험을 치는 전공과는 달리 50-60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험을 치는 교양수업 시험을 2명에서 3명의 조교와 교수가 감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감독관의 성향과 커닝방지에 대한 의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시험 시작 전 책상을 옮기고 줄을 맞추고 시험시간 틈틈이 교실을 돌며 학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등 시험감독에 철저한 감독관이 들어온 시험의 커닝은 현저히 줄어든다.

## 학생들은 왜 커닝을 할까?

커닝을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커닝이 열심히 시험준비를 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분명 알고있는 그들이지만 부정행위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지는 대학가 분위기에서 커닝유혹을 벗어내기란 쉽지않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학생은 "시험중간 옆에 학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쉽게 말하기 어렵다. 혼자 유난스럽단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02학번 이군은 "남들도 커닝을 하는데 자신만 하고 있지 않으면 솔직히 억울하다. 그래서 나 역시 책상위에 몇 가지를 써놓는 등 조금은 약한 범주의 커닝을 한다"고 말한다. 이군의 말처럼 대학가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커닝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실제로 존재한다. 때론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방식의 커닝이 경우에도 학생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요인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경제 상황등으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졸업생들은 치열한 취업난에 허덕거리고 있다. 갈수록 취업문은 좁아지고 결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학점은 점점 높아만 간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새내기 시절부터 학점에 신경을 쓰며 고등학교 4학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시험의 큰 목적이 평가이다 보니 점수 부분은 분명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 최근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커닝추방운동 스티커

사회에서 보다 높은 학점을 요구하고 또 학점으로만 평가받는 현실에도 분명 문제는 있다. 지금의 사회는 과정보단 결과가 우선 시되는 사회이다. 결과가 좋은 사람에게 그 과정의 비리나 잘못은 묻히고 만다. 사람들도 과정을 묻거나 질책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려한 성적표를 위한 커닝의 유혹을 떨치기란 쉽지않다.

## 지식이 재산이라면 커닝은 도둑질이다.

커닝의 영어적 표현은 'cunning'이다. 이 단어가 '교활한', '간사함'이란 뜻을 가진 것처럼 커닝행위는 지식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시험시간에 커닝이란 방법을 통해 남의 답을 훔치고 벽이나 책상위에 작게 써둔 답을 보는 것은 분명 교활하고 부정한 행위다. 당연 시험 중 커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예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시험감독관의 적절한 배치와 책임 있는 감독,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전에 커닝의 기회를 줄여야한다. 또 하나 암기위주의 문제보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 출제와 몇 년째 똑같은 족보로 불리는 문제 대신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가 필요하다. 과거 커닝은 캠퍼스의 낭만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지금 벌어지는 몇몇의 모습은 그 도를 넘어선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정직을 얘기하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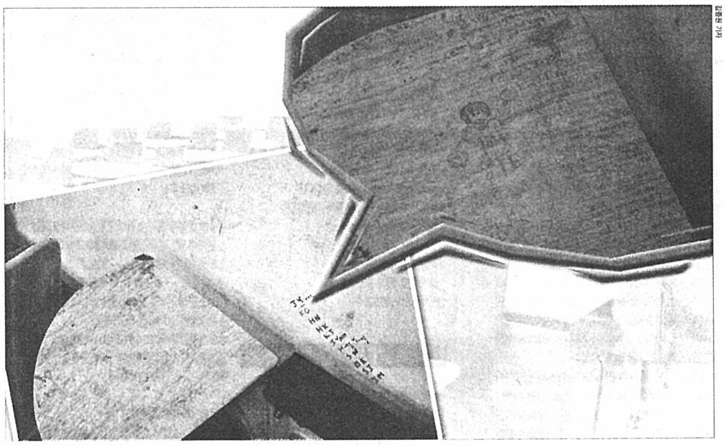
커닝의 가장 훌륭한 해결책은 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적 판단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며, 그럼 커닝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 청년의 솔직한 답안지를 기대하며

취재 중 만난 조교들은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만일 커닝을 하면 바로 답안지를 수거하고 성적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모두들 자신들의 후배이고, 다들 자신의 한 점을 소중히 하는 걸 알기에 적발이 되더라도 조용히 그 근처에서 눈치를 줄뿐 다른 제재행위를 하진 않는다고 답한다. 하지만 커닝을 하는 학생들이 명심할건 자신에게 그만큼 소중한 일점을 커닝의 형식으로 남에게 빼앗아오는 일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한다. 남들 다하니까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 또한 커닝을 하는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신방과 송봉주 조교는 "커닝을 한 답안지를 구별해내기는 어렵지 않다. 최근 교수님들은 점수에 후한 편이다. 만일 시험에서 자신이 공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 부분을 커닝을 해 답안지를 채울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으로 찬 답안지가 아닌 청년으로써의 솔직함이 묻어있는 답안지 일 것이다. 곧 다가올 기말고사 성적을 위한 거짓된 답안지가 아닌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답안지를 기대해본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김종원 기자

보도 - 4회 부천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 젊은 애니메이션의 축제 PLSAF 2002

오는 9일(토)부터 13일(수) 5일간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젊은이들의 애니메이션 축제 '2002 4회 부천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하 PISAF 2002)'이 열린다.

지난 1999년부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를 중심으로, 국내 만화·애니메이션관련학등 전국 120여개 대학 및 해외 450여개 애니메이션 전문학교들의 학생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학생 전문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는 행사이다.

4회 PISAF 2002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경향,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계 25개국에서 총 200여 작품이 소개될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샵, 공개강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는 지난 여름 극장가에 애니메이션 바람을 일으킨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작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최신작 '고양이 은혜 갚기'가 국내 최초로 상영돼 국내 애니메이션 팬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행사장 2층에 마련된 전문전시실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한 축인 애니메이션과 교수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애니메이션 저널리스트 헤키 요키넨의 '에스토니아 애니메이션 감독 프릿 판에 대해서' 등 총 7개 공개강의와 고지 야마무라 감독의 '독립애니메이션 만드는 법' 등 8개 워크숍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2002 앙시 페스티벌'에서 장편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마리이야기'의 이성강 감독의 단편이 준비되었으며, 한국, 독일, 미국 등 총 14개국 63개교에서 출품된 212편 중 예심을 통과한 40작품이 경쟁하는 '레커맨데이션 40 (Recommendation 40)'에서는 세계 애니메이션의 신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준비된 황신혜 밴드의 공연도 눈길을 끈다.

장소: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1회 관람비: 일반 5,000원
문의: (032)325-2062. www.pisaf.or.kr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행사 일정표>**

Ⓖ 전체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 시간 \ 날짜 | 11월 9일(토) | 11월 10일(일) | 11월 11일(월) | 11월 12일(화) | 11월 13일(수) |
|---|---|---|---|---|---|
| 11:00 | | 10:30 투니버스와 함께하는 신나는 더빙쇼 [60′] 11:30 멋대! 방울이 고고 다섯 쌍둥이 [60′] | 11:00 출동 메가 트레인 [25′] 아드만 어린이 애니메이션 [60′] | 11:00 레카 [60′] | 11:00 헝가리 크래프트 & 디자인 스쿨 쇼케이스 [60′] |
| 13:00 | | 12:40 덩가 무당벌레들의 크리스마스 [64′] | 프리미어 5 13:00 PISAF Favorite 9 50′ | 프리미어 2 13:00 KOCCA 만화 상영물 제작 지원 우수작 60′ | 13:00 이탈리아 카툰스 언더베이 풀시넬라 단편선1 [90′] |
| 14:00 | | 프리미어 3 14:30 월드 어메이징 단편선1 [80′] | 프리미어 6 14:30 자그레브 필름 단편선 [84′] | 프리미어 3 13:00 헝가리 KAFF 프로그램 [55′] | |
| 15:00 | 15:30 개막식 이벤트 "사운드 쇼" [60′] | | | | |
| 17:00 | 17:00 개막식 | 프리미어 4 16:30 이탈리아 카툰스 언더 베이 풀시넬라 단편선2 [72′] | 프리미어 1 16:30 월드 어메이징 단편선2 [78′] | 16:00 이성강 단편선 [57′] 프리미어 5 17:30 고양이의 보은 [75′] | |
| 19:00 | 프리미어 1 19:00 개막작 "고양이의 보은" [75′] | 18:30 PISAF 2002 경쟁부문1 [120′] | 18:30 PISAF 2002 경쟁부문2 [120′] | 프리미어 6 19:30 마이클 두덕 드 비트 최고전 크리스 힌튼 단편선 [60′] | 18:00 폐막식 및 시상식 90′ 19:30 PISAF 2002 수상작 상영 |
| 24:00 | 프리미어 2 0:00 심야상영 "PISAF 4U" 마이클 두덕 드 비트 최고전 외 3프로그램 | | | | 20:00 PISAF Forever "황신혜 밴드" [60′] |


**2003학년도 전기 신입생**
**대학원 일반전형 모집**

1. 모집인원
석·박사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 명

2.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홈페이지(http://www.hufs.ac.kr 또는 http://maincc.hufs.ac.kr/~hufsgs) 참조
* 석사학위과정 TESOL학과 신설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또는 면접)

4.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작성후 출력하여 3×4cm 사진 2매 부착) 1부
나. 대학 또는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성적 제외) 1부
라. 입학 후 연구계획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마. 전형료 입금 확인증 사본 1부
바. 기타 해당서류(홈페이지 참조) 1부

5. 전형절차
가. 입학지원서 작성(인터넷 작성) 및 출력
2002. 11. 7(목) - 11. 13(수)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 원서작성 요령을 숙지한 뒤 필요 사항을 입력
나. 원서 접수 : 2002. 11. 7(목) - 11. 13(수) 10:00-17:00 본 대학원 교학처
* 토요일, 일요일 휴무
다. 전형(면접)일 : 2002. 11. 23(토) 10:00부터

6. 기타 사항
가. 입학지원서류 우편 접수는 2002.11.13(수) 17: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나.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추후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하기 바람
다. 기타 입학전형관련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학처로 문의 바람

* 주소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 전화 : ☎) 02)961-4104, 962-7117

**2003학년도 전기**
**경영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 산업자원부 주관
"산학협동 e비즈니즈 대학원 지원사업" 본 대학원 선정
-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경영학 및 소프트웨어공학 전문인력 양성

석사학위과정 : 각 전공부문 약간명
- 경영정보학과
- MIS, 재무·회계, 운영관리, 조직·인사, 마케팅전공
- e비즈니스학과
- e비즈니스전공(신설)
- 응용전산학과
-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2003년 2월 졸업예정자포함),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자격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전형방법 : 영어시험 및 구술시험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접수 : 2002년 10월 30일(수) ~ 11월 8일(금) 17:00까지
나. 시험 일시 : 2002년 11월15일(금) 오전 10시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Homepage를 참고 바랍니다.
☎ 교학부 : 965-7046, 961-4119 구내(4119)
Homepage : http://www.gsmis.hufs.ac.kr
(경영정보대학원 동문 Homepage : http://www.gsmis.org)

**2003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세계경영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00명, · 연구과정 : 00명

2.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 과정 | 학과 | 전공(전문가 과정) | 전형방법 |
|---|---|---|---|
|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 | · 무역경영 | 서류전형 및 면접 |
| | 국제경영 | · 인시조직 · 마아케팅 · 국제경영(IB) | |
| | 국제해운물류 | · 국제해운물류 | |
| | 정보관리 | · 경영정보(MIS) · 전자상거래 | |
| | 국제금융 | · 보험 증권금융 · 재무/회계 | |
| 경제학석사 | 국제통상 | · 국제경제 · 지역연구 | |
| 연구과정 | 각 학과 | 각 전공 | |

3. 학위과정 특징
가. 2년내 석사학위 취득 가능
나. 학위논문 옵션제 실시

4.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인정대학)졸업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 학부전공에 제한 없음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서식, 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출력)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추천서(產·軍 제휴 위탁에 한함) 1부
* 영어권 이외의 외국대학 출신자는 증명서에 국문 번역을 첨부

6.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 2002. 11. 13(수) ~ 11. 19(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
나. 원서접수 : 2002. 11. 13(수) ~ 11. 19(화) (오후 2시 ~ 오후 9시)
* 토요일, 일요일 휴무
다. 전형일 : 2002. 11. 23(토) 14:00 본 대학원

7. 특별장학제도
가. 공무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나. 재학 중 성적 우수자(재학생의 30%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입학문의 : 세계경영대학원 교학부 Tel : 02)961-4109, 4369 / www.hufs.ac.kr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03학년도 전기**
**정책과학대학원(야간) 특별전형**

* 정책과학대학원은 언론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의 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학과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 모집과정 | 학과 | 전공 | 모집인원 | 전형방법 |
|---|---|---|---|---|
| 석사과정 | 공공정책 | 공공정책, 공공행정 | 각 학과 00명 | 서류전형 면접 |
| | 환경정책 | 환경정책, 환경감사 | | |
| | 외교안보 | 외교안보 | | |
| | 북한 | 북한 | | |
| | 신문 방송 | 신문, 방송 | | |
| | 광고 홍보 | 광고, 홍보 | | |
| 연구과정 | 각 학과 | 각 전공 | | |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독학사

3.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사진 3매(3×4㎝))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00분율 성적환산 표기) 1부
라.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추천서(產·軍 제휴 위탁에 한함) 1부
*해외에서 학위취득자는 '나', '다' 항의 한글공증서 첨부

4. 전형일정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 11. 11(월)~11. 19(화)
- 교부(무료):인터넷상 24시간 ,접수: 교학부 14:00~21:00
나. 전형(면접)일시 : 2002. 11. 23(토) 14:00
다. 합격자 발표 : 2002. 11. 29(금) 14:00 ( 본 대학원 게시판 )

5. 장학금 지급
가. 본 대학원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
나. 본 대학원 동문회 장학금
다. 휠라코리아(주)장학금(환경정책학과, 북한학과)
라. 국가공무원(군·경 포함) 및 언론기관 현직간부 학비감면

6. 학위과정 특징
가. 학위논문 제출 없이도 학위취득 가능 (소정의 교과목 이수)

7. MPA(행정학석사)온라인프로그램 모집전형-www.MPA.ac.kr 참조
*원서 교부는본대학교홈페이지를통해 해당 기간에 인터넷으로 합니다.
*원서 접수는본 대학교홈페이지의웹 상에서 본인이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간 14:00~21:00)
*웹 상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http://www.hufs.ac.kr
* 문의처 : 정책과학대학원 교학부 (02)962-3950, (02)961-4093